

## 꽃의 종주국 네덜란드에 꽃포장지 수출 해외마케팅 부문 생산성 대상 수상

### 섬유 폴리백 생산회사로 출발

기업의 최종 목표는 우수제품을 개발하여 판매에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해 세계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수많은 기업중에 많은 수출액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꽃의 종주국인 네덜란드에 꽃포장지를 수출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있다.

경기도 양주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풍화성주식회사는 지난 76년 설립돼 그동안 백양 등의 메리야스 회사에 양말, 넥타이 등의 포장백을 공급해 오다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꽃봉투 수출을 꾀하다 지금은 오히려 이 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자가 서울 성수동 소재 사무소를 찾았을 때 김영학 사장은 바쁜 일손을 놓고 반겨 맞았다. '성공 세일즈맨을 위한 대화기법'이라는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신뢰와 협동,

치밀한 계획, 성실한 실천, 완벽한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 액자 속의 사훈이 눈길을 끌었다.

“저희 삼풍화성주식회사는 지난 1976년 3월 삼성화성공업사로 처음 출발해 섬유폴리백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86년 6월에 지금의 삼풍화성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87년 무렵에는 무역업 허가를 받아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지요.”

현재 삼풍화성은 임직원이 모두 75명으로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에 비해 탄탄한 기업경영이 자랑이다. 의정부에 자리한 공장은 대지 700평에 건평이 500평에 이르는데 10억 이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주요 설비로는 압출기, 인쇄기, 드라이 라미네이터기, 실링기, 슬리터, 마이크로펀칭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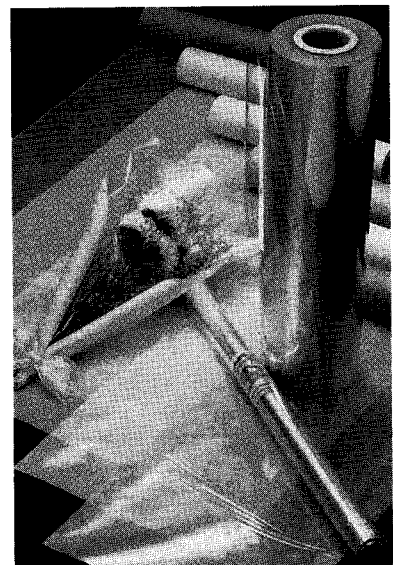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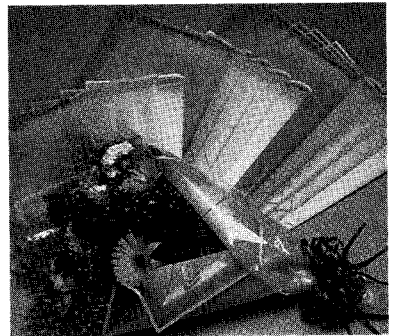
최근 경영의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돼 생산 물량을 미처 소화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 때문에 원자재가 들어갈 공간이 좁아 별도로 공장부지 1500평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김 사장은 사실 증축이나 사업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줄곧 양말, 스타킹, 속내의, 메리야스 등의 포장백을 생산해 왔는데 선진외국의 꽃포장지에 적용되는 BO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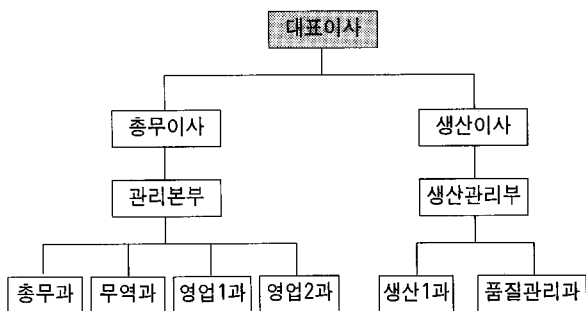
POLY BAG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91년도부터 꽃포장에 적합한 '사다리' 형태의 꽃포장지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 꽃포장지 생산으로 무역역조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본에 수출을 시작했는데 91년에 약 30만불, 92년에는 약 20만불어치를 수출하였다.

현재 삼풍화성의 제품 생산량중

▼삼풍화성에서 생산하고 있는 꽃포장지



(표1) 삼풍화성 조직표



내수비중이 60%, 수출이 40%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이다. 특히 92년도 하반기부터 꽃의 종주국인 네덜란드에 진출하여 네덜란드 꽃시장의 최대업체와 계약, 월 약 4만불어치를 수출했으며, 93년 5월부터는 생산시설을 두 배로 확충해 약 10만불어치 수출의 개가를 올리고 있다. 현재 5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삼풍은 바이어의 수요 물량을 충분히 대주지 못할 정도라고

그러나 김 사장은 수출여건이 언제나 지금처럼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낙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후발개도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및 이스라엘 등에서 꽃봉투 생산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 나라와 같은 고임금의 기업 여건에서는 곧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삼풍화성은 꽃포장지 외에도 계속적인 제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인색한 일본포장 업계에 도전, 콤팩트 디스크 포장재 수출에 성공, 현재까지 2년간 콤팩트 디스크 포장재 3천6백만엔어치 이상을 수출했다. 올해 5월부터는 신제품 개발로 월 300만엔어치의 수출계약을 진행시키고 있다.

삼풍화성은 또한 환경적응형 첨단 포장재 개발에도 힘써 물에 녹는 PVA FILM을 사용한 세탁봉투를 생산중에 있다. PVA FILM이 인쇄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일본에서만 가능했던 특수인쇄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또 최근 독일에서 최신 설비를 들여와 ‘숨쉬는’ 비닐,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비닐 생산도 시작하



▲의정부 공장의 가공라인 작업 풍경

여 호주등지에 세탁용 포장재 수출에 나섰는데, 이 제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을 못하고 있어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해 2차가공을 통해 호주로 내보내고 있다.

#### 해외마케팅부문 생산성 대상 수상

우리나라 합성수지 계통의 수출은 그 대부분이 소재에 한정되어 있고 완제품 수출이 거의 전무한데 반하여 삼풍화성의 성과는 완제품 수출이라는 점에 있어 외화 획득과 중소기업 발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삼풍은 1989년에 유망 중소기업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1991년에는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또한 1992년에는 무역진흥공사로부터 우수상품 업체로 선정되어 일본전시회에 참가, 삼풍화성 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 열린 중소기업전진대회에서 우수중소기업 부문 상공자원부장관상을 받았고, 7월에는 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생산성 대상에서 해외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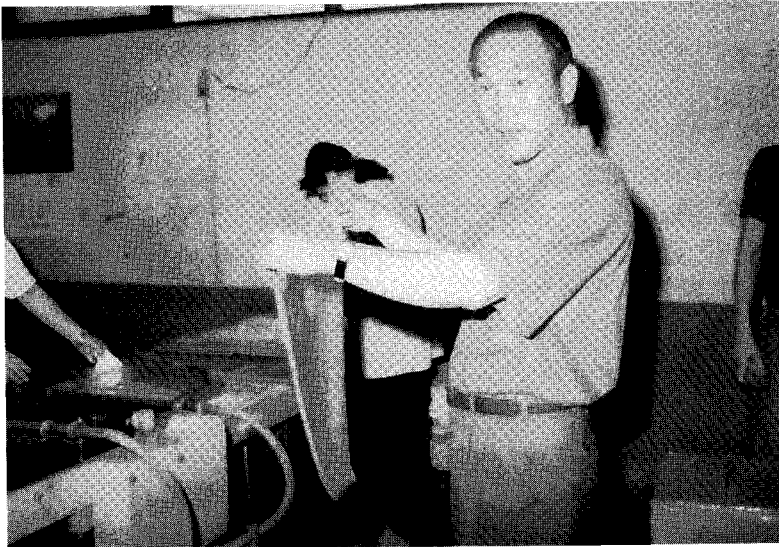
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공자원부로부터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상을 받은 것은 뜻밖의 영광이었습니다. 꽃의 종주국인 네덜란드에 꽃봉투를 수출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까다로운 포장업계를 뚫고 진출했다는 것을 정부에서 높이 사준 것 같습니다.”라고 김 사장은 겸손의 말을 잇는다.

삼풍화성은 인적 물적 로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사무자동화 작업에 착수, 올 상반기에 전체적인 사무자동화 작업을 마치고 제품관리 및 영업부문에 높은 효율을 기하고 있다. 공장에 컴퓨터를 도입해 폴리백의 재고와 원자재, 동판관리, 회계업무 및 영업관리 등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의 활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인력 관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김 사장은 다행히 현재까지는 약간명의 종업원 이직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한다.

삼풍은 1989년에 유망 중소기업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1991년에는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또한 1992년에는 무역진흥공사로부터 우수상품 업체로 선정되어 일본 전시회에 참가, 삼풍화성 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 열린 중소기업전진대회에서 우수중소기업 부문 상공자원부장관상을 받았고, 7월에는 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생산성대상에서 해외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공자원부로부터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 공장에서 제품검사를 하고 있는 김영학 사장

“종업원들과는 부모와 자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진솔하게 종업원들을 대하니 종업원들도 믿고 따릅니다. 서울 공장에서 경기도 양주로 이주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대개 지방으로 공장이 옮겨가게 되면 종업원들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회사운영의 어려움이 크기 마련인데 저희 회사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노사가 모두 신뢰를 잃지 않고 있는 한기족입니다.”라며 김 사장은 미비하긴 하지만 종업원들의 복지시설

로 교양실, 오락실, 기숙사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성수지 폴리백 회사로서 웬 만큼 성장하게 되면 다세대주택을 지어 종업원들에게 분양하는 한편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종업원들과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싶다고 하며 미래 경영 포부를 밝힌다.

“우리나라 플라스틱산업의 규모는 방대하지만 표준산업 분류번호가 잘못되어 있어 업종별 분류번호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그로 인한 업계의 불

이익이 큰 만큼 포장협회와 같은 관련단체, 업계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삼풍화성이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종업원들에 대해 깊은 배려를 가지고 있는 김영학 사장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경영인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대화중에 ‘솔선수범하는 자세,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하던 김 사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뜻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9월의 주말 가을 하늘은 마냥 상쾌하기만 했다.

이선하 기자